

# 방콕을 아시나요

김강석 / SBS 편집부 차장

**여름** 여름 휴가는 이른바 방콕을 선택했다. 방에 콕 틀어 박혀 뒹굴뒹굴 보내는 휴가말이다. 이젠 순전히 경륜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동안 보냈던 숲한 휴가들을 생각해 보라. 강원도 설악산, 제주도 나아가 해외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곳이면 기어코 가서 확인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이번 여름은 근사한 데서 보냈다고 지인들에게 말 문을 열어야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의 적나라한(?) 휴가 관행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모처럼 방향전환을 했다. 하루 일과를 살펴보자. 우선 집에서 약간 늦잠을 잔 뒤 오전 8시쯤 일어난다. 그리고 신문을 본다. 흑자는 신문과 TV를 모두 끄고 대체로 속세와 절연해야 방콕다운 방콕이 완성된다고 주장하지만 하루 아침에 모든 연을 끊을 경우 금단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끊는 편이 좋다.

그리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졸리우면 또 잔다. 듣고 싶은 음악을 듣거나 빌려온 DVD 영화 한편을 보면서 잠에 빠져들면 더욱 달콤하다. 점심 무렵 그러니까 한시에서 늦어도 3시 사이엔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전 외신에선 낮잠은 30분 정도 자는 것이 가장 개운하고 몸에 좋다고 충고한 바도 있다.

점심은 배달에 관한한 내로라 하는 동네 음식점에서 시켜 먹는 것이 편하지만 시원한 콩국수 등을 만들어 먹는 것도 별미다. 이후는 본격적인 자유시간. 인터넷 서점을 기웃거리거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정취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락거릴 수 있는 것도 이때다. 단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을 죄다 탕진할 우려가 있다. 뚜렷한 목표 없이 부유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상이니 효율적인 행태가 필요하다.

한여름 해질 무렵부터 방콕 휴가자의 나들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집근처 새로 생긴 헌책방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싸게 파는 CD 가게, 그동안 바빠서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의류나 신발 할인 매장, 스포츠 용구점 등을 어슬렁거리며 구경 다닌다. 물론 필요한 건 이때 사들인다. 동네에 있는 멀티 플렉스 영화관에서 개봉 영화를 한편 챙기는 것도 역시 저녁이나 밤 시간대가 제격이다. 그 이후는 다음날 해먹을 찬거리와 각종 먹을 것이 득실대는 대형 할인수퍼에 들러 이것 저것 고르고 재보는 재미를 만끽하고 먹을 만큼만 사서 집으로 운반한다. 집에 와선 비디옌나 DVD를 보거나 TV를 시청하며 혹은 음악을 들으며 소파 등에서 날부러져 꿈나라로 들어간다. 그래도 하루는 화살이다.

마지막으로 방콕에 대한 충고를 한다면 항상 샤워와 목욕을 자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흑자는 양치나 목욕을 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방콕의 참맛이라고 주장하지만 몸이 개운해야 시간의 여유로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운동과 목욕은 방콕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단언한다.

성공적인 방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아내의 협조다. 이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PIPER**